

번호: OP-J-004

|                 |  |       |             |            |    |
|-----------------|--|-------|-------------|------------|----|
| 제 목             | 국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과 정보제공 현황<br>The Coverage and Information Providing of Complementary Private Health Insurance in Korea  |       |             |            |    |
| 저 자<br>및<br>소 속 | <p>이진석1), 정백근2), 김현수3), 김재현4)<br/>         1)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정보학및관리학교실, 2) 경상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br/>         3)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경제금융보험학부, 4) 서원대학교 경영학부 금융보험학과<br/>         Jin-Seok Lee1), BaekGeun Jeong2), HunSoo Kim3), JaeHyun Kim4)<br/>         1) 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cs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3) Division of Economics, Finance &amp; Insurance, College of Social Science, Soonchunhyang University, 4) Department of Finance &amp; Insurance, School of Business, Seowon University</p> |       |             |            |    |
| 분 약             | 의료관리<br>[의료보장/경제성평가]   | 발 표 자 | 이진석<br>일반회원 | 발 표<br>형 식 | 구연 |

**목적:** '05년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8~1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연 평균 보험료 수입 증가율이 15%를 상회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과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방법:** 민간의료보험의 보장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험개발원 및 관련 업계의 통계, 주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약관을 분석하였으며, 정보제공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험협회의 비교공시자료 분석과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은 '03년 기준으로 62.1% 수준이다. 영국, 프랑스, 미국 등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80% 대의 지급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과 보험료 구성이 유사한 사망보험의 예정사업비 비율을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지급률을 추정한 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국내 보험사 상품에 비해 외국계 보험사 상품의 지급률이 10%p 이상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보장성 문제를 유형별로 구분한 결과, 보험상품의 복잡성, 제한적인 보장범위, 엄격한 보험금 지급요건, 계약 초기기간의 보험금 과다 삭감, 저가 보험상품의 취약한 보장성 등의 문제 영역이 도출되었다.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도 취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보험업법상의 무조항으로 규정된 상품정보 비교공시 시행률이 '05년 4월 기준으로 22.7%(생보3사 기준) 수준이며, 비교공시의 내용도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보험협회의 비교공시를 알고 있는 비율이 15.4%에 불과하며, 이들 중에서도 36.1%만이 비교공시를 통해 정보 획득을 용이하게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하였다. 보험상품 구매시, 타 상품과 보장성 및 가격 등을 비교해 보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5.9%였다. 그러나 이들의 67.1%가 보험판매인과 주위사람의 조언을 통해 상품 비교를 한 것으로 나타나 객관적 상품비교를 통해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고찰:** 최근 재기되는 민간의료보험 확대 주장의 중요한 근거는 취약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민간의료보험 상품은 적절한 보장성과 정보제공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국민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은 국민의료보장의 일익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취약한 보장성을 확대하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기능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